

Contents



통계로 보는 국제물류

- 창고자동화, 소매·제조·물류기업의 최대 기술 투자 영역



물류정책·산업동향

1. Cargotec, 해양 스타트업 이니셔티브 개시
2. Kalmar, MFM의 크레인 업데이트 계약 체결
3. 싱가포르, 공항·항만 간 연계 통한 복합운송 허브 입지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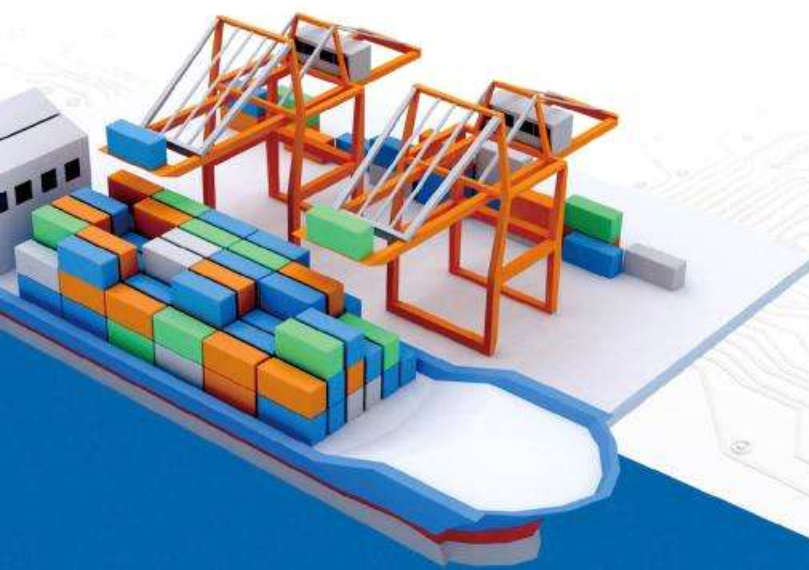
공지사항

1. 2019 해운·물류기업 해외진출 지원사업 공모
2. 제9차 한러극동포럼 개최 계획 (안)

명사 스피치

“사람중심, 혁신성장, 상생협력, 고객존중 등 4대 경영방침을 통해 사회적 가치구현 및 공공의 이익 창출에 더욱 힘쓰겠다”

남기찬 부산항만공사 사장
(2019. 5. 9. / 2019 IAPH 지속가능성장 어워드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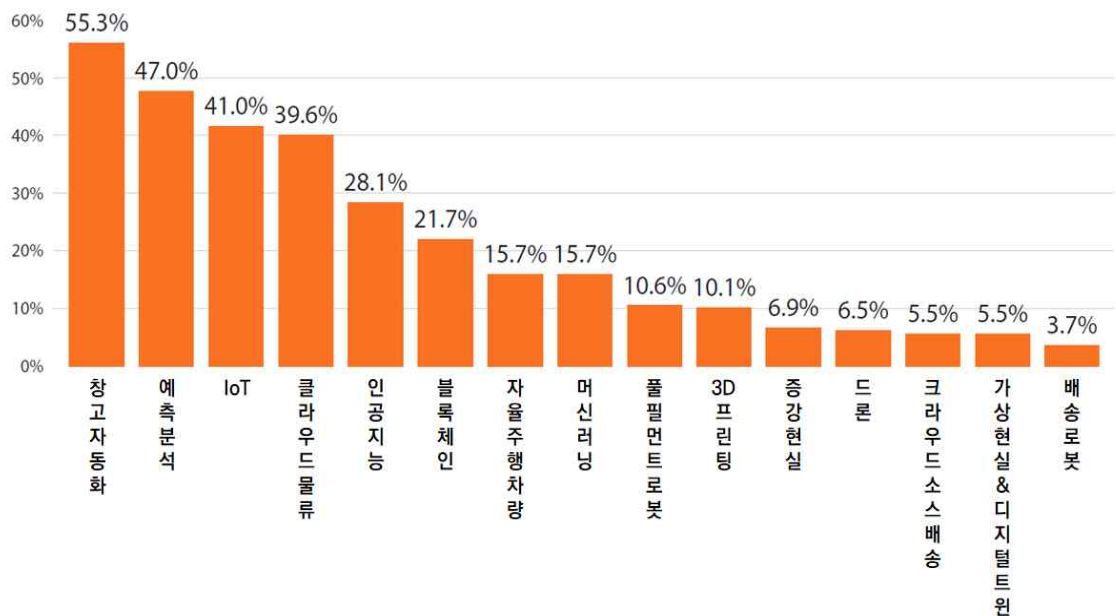




통계로 보는 국제물류

창고자동화, 소매·제조·물류기업의 최대 기술 투자 영역

전 세계 소매·제조·물류서비스·솔루션기업의 기술 투자 부문 현황



자료 : www.eft.com

- 미국의 물류서비스정보 제공기업 eft의 조사에 따르면 전 세계 소매·제조·물류서비스·솔루션 기업들의 55%가 창고자동화에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설문은 전 세계 소매·제조·물류서비스·솔루션 등의 산업에 종사하는 전문가 765명을 대상으로 실시됨
 - 창고자동화 다음으로 예측분석(47%), IoT(41%), 클라우드물류(39%) 순으로 높은 투자 빈도를 보이고 있음
- eft의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들의 생산성 향상 노력으로 자동화에 대한 투자는 앞으로 더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됨
 - 물류산업의 인력부족 현상은 점점 고급인력부터 단순노동인력까지 확대되고 있음
 - 특히 선진국의 단순작업 가용 노동인력 부족에 따른 노동시장의 유연성 감소로 인해 물류산업의 자동화를 통한 효율성 제고는 중요한 해결책으로 떠오르고 있음
 - 한편, 2018년 중반 미국 내 트럭운전 인력은 약 5만 명이 부족한 것으로 추산됐으며 영국, 독일, 프랑스, 덴마크, 스웨덴 및 노르웨이에서는 약 13만 명의 운송인력 부족현상이 나타남에 따라 기업들은 기존인력 유지와 신규인력 창출을 위한 임금지불 부담을 가지고 있음
 - 이에 따라 대다수 기업들의 기술 투자를 통한 노동 생산성 극대화를 위한 노력은 앞으로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참고자료 : www.eft.com, "Supply Chain Hot Trends 2019", 2019.5.21.



물류정책·산업동향

Cargotec, 해양 스타트업 이니셔티브 개시

- Cargotec이 Rainmaking Trade & Transport Impact Programme(이하 Rainmaking Programme)의 결과로 7개의 스타트업 기업과 공동 프로젝트를 시작함
 - 해양 분야의 스타트업을 위한 선도적 협력 플랫폼인 해양 스타트업 이니셔티브(Maritime Start-Up Initiative)는 화물 운송, 물류 등의 사업 분야에서 직면하고 있는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시작됨
- Cargotec의 이머징디지털사업 Tero Hottinen 책임자는 본 이니셔티브가 해양 산업에서 발생되고 있는 비효율적인 요소들을 해결할 수 있는 큰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고 함
 - Cargotec이 Rainmaking Programme에 참여한 목적은 단기간에 성과를 얻을 수 있는 파트너를 찾는 것이며, 이를 위해 계열사인 Kalmar, MacGregor, Navis가 본 이니셔티브에 참여하고 있음
- 먼저 컨테이너 하역장비 솔루션 분야 글로벌 선도기업인 Kalmar는 Arundo Analytics, Cogniac 및 Prediconics와 협력해 Kalmar의 서비스 제품 개발을 목표로 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음
 - Kalmar의 신서비스사업부문 Lasse Eriksson 부사장은 전 세계 고객들을 위한 새로운 부가가치 솔루션을 개발하기 위해 타 분야 디지털 서비스 개발 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파트너들과 함께 Rainmaking Programme에 참여했다고 함
- Cargotec의 또 다른 계열사인 MacGregor와 Navis 역시 다른 스타트업들과 공동으로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음
 - MacGregor는 Geollect, Intelligent Cargo System, NauticAI와 함께 IoT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예측 유지보수시스템, 안전 계류시스템 등 다양한 솔루션을 개발할 예정임
 - Navis는 최초의 디지털 컨테이너 선사 설립을 위해 Contopia 대회를 시작한 Loginno와 협력하고 있다고 함

■ 참고자료 : Port Technology, Cargotec Launches Maritime Start-Up Initiative, 2019.05.14.

강무홍 전문연구원

051-797-4684, mkang@kmi.re.kr

Kalmar, MFM의 크레인 업데이트 계약 체결

- Kalmar는 항만에 필요한 하역 장비를 판매하는 기업임
 - Kalmar는 포크리프트, 리치스태커, 터미널 트랙터, 크레인 등 항만 내 하역 작업에 필요한 장비를 판매함
 - 최근에는 무인운송차량(automated guided vehicles: AGVs)과 자동화 야드 크레인(automated stacking cranes: ASCs) 등과 같은 자동화 장비 및 솔루션을 제공함
- Malayan Flour Mills Berhad(MFM)는 말레이시아의 주요 제분기업임
 - MFM은 캐나다, 호주, 미국 또는 동유럽에서 밀이나 옥수수 등을 수입해 제분함
 - 말레이시아뿐 아니라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등지에서도 영향력을 확보함

MFM의 하역 크레인



자료 : <https://www.kalmarglobal.com/contentassets/d78b1248588541d399e24a6818385f50/image-1-malayan-flour-mills-berhad.jpg> (2019.05.19.)

- 지난 5월 15일 Kalmar는 MFM 크레인 업데이트 계약 체결을 발표함
 - Kalmar는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MFM 하역 크레인 업데이트 계약 체결을 발표했음
 - 대상은 30년 이상 활용된 2대의 하역 크레인임. 새로운 장비를 도입하는 대신, 장비를 높이고 기동을 보 위해 대형선박을 처리할 수 있게 하고, 장비 수명을 5년 이상 증가시키는 것임
 - 본 공사는 2020년 2분기까지 종료하기로 계획됨
 - 이는 노후화된 장비를 교체하거나 대형선박 처리를 위한 크레인을 구매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님을 보여주는 예라 할 수 있음

■ 참고자료 : https://www.kalmarglobal.com/pressroom/press_releases/2019/kalmar-to-extend-lifespan-and-capabilities-of-two-key-cranes-at-malayan-flour-mills-berhad/, 2019.5.19.

서정용 전문연구원

051-797-4676, jseo@kmi.re.kr

싱가포르, 공항·항만 간 연계 통한 복합운송 허브 입지 강화

- 싱가포르는 공항과 항만 간 연계(Sea & Air)를 통한 복합운송 서비스 허브화 전략을 본격 추진함
 - 싱가포르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업체인 'PSA International'과 창이공항 지상조업사인 'SATS'는 해상-항공 복합운송 허브화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함
 - 양 사는 항만과 공항을 연계함으로써 글로벌 물류기업과 화주들에게 원활한 물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임
 - 특히 신선 물류와 전자 기기, 전자상거래 물동량을 적극 유치해 복합운송의 전진기지 역할을 제공한다는데 궁극적인 목표를 두고 있음
- 양사는 화물운영 시스템 통합 및 데이터 공유, 통합 물류망 구축 등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협력하기로 함
 - SATS가 운영하는 화물 터미널 취급 및 관리 시스템인 'COSYS+'와 PSA의 자회사인 GeTS Asia가 개발한 글로벌 공급망 플랫폼인 'CALISTATM'을 통합할 예정임
 - 이를 통해 데이터의 실시간 업데이트와 다양한 복합운송 수단을 통해 수송되는 화물의 가시성을 향상시킬 것이며, 정밀한 데이터 분석 기능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힘
- 공항과 항만 간 연계를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수립과 공급망 혁신 등 글로벌 환적 허브로서의 싱가포르 위상을 향상시킬 것으로 예상됨
 - PSA와 SATS 간 파트너십은 항공과 해상의 서비스를 결합해 싱가포르가 세계 환적 허브로서 싱가포르의 입지를 강화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공급망 혁신을 촉진할 것으로 예상됨
 - PSA 인터내셔널 그룹의 CEO인 Tan Chong Meng씨는 "이번 SATS와의 파트너십은 화주의 서비스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공항과 항만을 연계함으로써 싱가포르의 위상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밝힘

PSA와 SATS의 업무협약(MOU) 체결



자료 : <https://www.porttechnology.org>

■ 참고자료 : www.seatrade-maritime.com, 2019.5.10



공지사항

2019 해운·물류기업 해외 진출 지원사업 공모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우리 해운·물류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해양수산부의 지원을 받아 '화주-물류기업 해외 동반진출 지원사업'과 '해운·물류기업 해외 진출 타당성 조사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9년 5월 8일
국제물류투자분석·지원센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1. 신청기간

□ 2019년 5월 8일(수) 09:00 ~ 2019년 6월 7일(금) 17:00까지

2. 신청 사업

- 1) 화주-물류기업 해외 동반진출 지원사업
- 2) 해운·물류기업 해외 진출 타당성 조사 지원사업

3. 신청대상

- 1) 화주-물류기업 해외 동반진출 지원사업

□ 물류기업 :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물류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 화주기업 : 국내에 사업장을 보유하고 제조·유통·무역·건설·자원·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의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 국내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해외에 주사무소를 둔 기업은 대한민국 국민의 지분이 50% 이상인 경우에 신청 가능

** 화주기업과 물류기업 간의 관계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계열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



2) 해운·물류기업 해외 진출 타당성 조사 지원사업

☐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라 물류사업을 영위하는 자

☐ 재무적 투자자(「은행법」 제8조 따른 은행, 법령에 근거하여 설립된 각종 연기금과 공제회 등)

* 단, 재무적 투자자는 해외사업을 추진할 해운·물류기업을 지정하여 신청해야 함

☐ 화주(貨主)기업(「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물류사업을 국내에서 영위하고 있지 않은 非물류기업 포함)

* 단, 화주기업은 해외사업을 협력하여 추진할 해운·물류기업을 지정하여 신청해야 함

4. 지원내용

1) 화주-물류기업 해외 동반진출 지원사업

☐ 화주물류기업 간 동반진출 협력과정에서 원자재 조달, 제품 생산·판매 등에 수반되는 물류 프로세스 및 공급망의 진단·분석·설계, 현지시장 조사 등에 필요한 공동 컨설팅 비용을 지원

☐ (지원규모) 컨설팅 비용의 최대 50%(약 40백만원)까지 보조금(국비)을 지원하며, 나머지 기업부담분은 컨소시엄 참여기업이 협의하여 부담

*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컨소시엄에게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을 통해 보조금 교부

**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컨소시엄은 보조금을 교부받기 전에 보조금 교부 및 컨설팅 수행조건 등에 관한 업무협약서를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체결해야함

☐ (컨설팅 수행) 컨설팅은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기업(물류기업 또는 화주 기업)이 직접 수행을 원칙으로 하나, 참여기업이 협의하여 선정한 제3의 국내외 전문기관업체 등에 자문 또는 컨설팅의 일부를 위탁 수행할 수 있음

2) 해운·물류기업 해외 진출 타당성 조사 지원사업

☐ '진출사전 지원'과 '현지밀착 지원'으로 유형을 구분하여 컨설팅 1건당 최대 1억원 범위에서 비용의 70% 차등보조

* 기업별 실제 지원비율과 지원액은 선정심사위원회 평가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예산 범위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실제 보조금 교부금액은 지원비율에 따라 계산된 금액보다 적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 (지원조건) 보조금 수혜기업이 국내외 연구기관 및 컨설팅 업체 등에 의뢰한 타당성조사 관련 용역비용(계약기준)에 대해서만 지원

* 수혜기업의 자체활동 비용(예: 직원의 해외 출장비, 인건비 등)은 인정되지 않음

5. 신청방법

-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홈페이지(www.kmi.re.kr, 공지사항)에서 사업신청서 양식을 다운 받아 작성하고,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

* 접수 기간: 2019. 5. 8(수) 09:00 ~ 2019. 6. 7(금) 17:00

- ☐ 제출방법 : 직접제출 또는 우편제출(전자파일 저장매체(USB) 동봉)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17:00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e-mail 접수 불가

- ☐ 문의처 : 국제물류투자분석·지원센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주소 : 606-080 부산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동삼동)

* 담당 : 최나영환 전문연구원(051-797-4770, chnayoung@kmi.re.kr),
김동환 연구원(051-797-4913, kdong@kmi.re.kr)

6. 제출서류

- (1) 신청서 1부(양식 참조, 전자파일도 함께 제출)
- (2) 사업제안서 10부(양식 참조, 전자파일도 함께 제출)
- (3) 정보 제공 및 공개 동의서 1부(양식 참조)
- (4)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5)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 (6) 최근 결산연도 기준 재무제표 및 손익계산서 사본 1부
- (7) 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중소기업 등 기준 검토표 1부 (중소물류기업)
- (8) 그 밖에 사업제안서의 내용을 증빙하는 서류

* 신청서와 사업제안서를 제외한 서류는 컨소시엄 참여기업별로 각각 제출해야 함

7. 선정절차 및 방법

- ☐ 1차 서류심사와 2차 평가위원회 심사로 진행되며, 2차 사업제안서 평가에서 70점(100점 만점) 이상을 획득한 사업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

*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되며, 그로 인해 실제 보조금 교부금액은 지원 비율에 따라 계산된 금액보다 적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 최종 결과발표 (예정) : 2019년 6월 17일(잠정) 이후 공고 또는 개별 통지



8. 유의사항

- ☐ 신청서, 사업제안서 등 양식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
- ☐ 선정 결과 발표 이후, 제출 서류 전체 또는 일부 위·변조 혹은 허위 기재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선정 및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
- ☐ 신청기간 중 접수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아니함
- ☐ 제출서류 상의 기재착오, 누락 혹은 연락불능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신청기업의 책임임
- ☐ 신청기업은 필요에 따라 해양수산부·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에서 실시하는 정기 설문에 응할 의무가 있음

제9차 한러극동포럼 개최 계획 (안)

1 한러 극동포럼 개요

□ 배경과 목적

- 초국경 협력시대 개막 전망에 따른 극동러 지역에서의 한러 공급사슬 구축을 위한 협력 방안 제안
 - 자바이칼, 부랴트공화국 편입에 따른 극동 공간 확장에 부응
 - 남북러(중) 협력 가능성 논의의 장 제공
- 실질적인 투자와 우리 기업 진출에 '기회의 장' 제공
- 한러 협력을 통해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성공모델 창출에 기여

□ 주 제 : 초국경 협력시대 극동에서의 한러 공급사슬 구축방안

□ 일 시/ 장소 : 2019. 6. 4(화) ~ 6. 5(수), 블라디보스토크

□ 주 최 및 주관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주블라디보스토크 총영사관

□ 주요 포럼 일정

6. 4(화)	18:00 ~ 20:00	■ 한러 정책 다이얼로그 - 블라디보스토크 롯데호텔 랑데뷰
6. 5(수)	09:00 ~ 17:20	■ 한러 극동포럼 - 블라디보스토크 롯데호텔 다이아몬드A홀
	14:00 ~ 17:30	■ 신북방 경제협력 플라자 - 블라디보스토크 롯데호텔 다이아몬드B홀

□ 참가자(안) :

- (한측)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토연구원, 산업연구원 등 국책 연구기관 및 학계, 민간 기업 전문가
- (러측) 러시아과학아카데미, 극동연방대, 네벨스코이국립해양대, 세관대학, 극동해양연구소(FEMRI) 등 연구기관 전문가 및 민간 기업 전문가

2 한러 정책 다이얼로그(안)

□ 개요

- 일시 및 장소: 2019. 6. 4(화), 18:00~20:00, 롯데호텔 랑데뷰
- 주제: 극동러 개발을 위한 한러 협력 성과와 확대방안
- 주요 참가자:
 - (한측, 총 13명) KMI 양창호 원장, 국토연구원 강현수 원장, 산업연구원 장지상 원장, 블라디보스토크 총영사, KOTRA 양장석 관장, KMI 이성우 본부장, 기업은행 이현수 소장, 서울대학교 안동환 교수, 유수로지스틱스 임오규 대표, 포스코 에너지 김주호 그룹장, EY모스크바 회계사 천정우 대표, LH한국토지주택공사 이병만 처장, LS네트웍스 김정훈 지사장
 - (러측, 총 15명) 코제먀코 연해주 주지사, 톨릭 연해주 의회 의장, 구메늑 블라디보스토크시장, 브릭 블라디보스토크시 의회 의장, 흐루쉬체프 연방교통부 블라디보스토크 대표, 스트라치코프 연해주 국제협력국장, 코로스테레프 캄차트카주 경제개발부 장관, 페트라코바 캄차트카주지사 비서실장, 카피토노프 사할린 수산청 부청장, 테키에프 베르쿠트 그룹 회장, 스투프니츠키 연해주 상공회의소 회장, 톤키흐 나선콘트란스 대표, 예로힌 EY 극동대표, 세메니힌 FEMRI 소장, 부로프 네벨스코이 국립해양대 총장

□ 세부 프로그램

시간	주요 내용
18:00~20:00 *사회: 이성우 본부장	■ 주제: 극동러 개발을 위한 한러 협력 성과와 확대 방향 ■ 좌장 - (한측) KMI 이성우 본부장 - (러측) 미정
	■ 진행 방식: 한러 교대 자유 토론 ■ 세부 논의 주제 및 방향(예시) ○ 극동러 발전 현황과 방향 (러측 정부 또는 주정부 참석인사 중심) ○ 극동러에서의 신북방 정책 추진 현황과 방향 (한측 연구기관 중심) ○ 참석인사 자유 발언 (분야별 협력 현안 및 확대 방안 중심)

* 상기 일정은 현지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3 9차 한러극동포럼 프로그램(안)

○ 일시 및 장소: 2019.6.5(수). 09:00~18:00, 롯데호텔 다이아몬드A홀

구 분		주요 내용	
09:00~09:30		참가자 등록 및 네트워킹	
개회식			
09:30~09:55	개회사	(한측) 양창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원장	
	축 사	(러측) 코제마코 연해주 지사(잠정)	
09:55~10:00		사진 촬영	
Session I		농수산 분야 초국경 Supply Chain 구축의 기회와 도전	
10:00~12:00 좌장: Boris Stupnitsky 연해주 상공회의소장	주제 발표 각 15분	1. 극동러 농업 공급사슬 구축의 기회와 도전 (알렉세이 에멜류아노프 농바이오연구센터 극동대표) 2. 극동러 수산업 공급사슬 구축의 기회와 도전 (장홍석 박사, KMI) 3. 극동러 농수산 공급사슬 구축 한러협력 회고와 전망 (세르게이 레루힌 극동수산물거래소 대표) 4. 남북러 초국경 농수산 공급사슬 구축의 새로운 방향제언(김종선 센터장, 농경련)	
	토론 각 10분	(한) 엄선희 실장(KMI), 안동환 교수(서울대) (러) 마요로프 극동투자수출지원청 투자국장, 마틴 테이트 Tate그룹 대표	
12:00~13:30		오찬	
Session II		제조업-산업단지 분야 초국경 Supply Chain 구축의 기회와 도전	
13:30~15:30 좌장: 장지상 산업연 원장	주제 발표 각 15분	1. 러시아의 제조업 국제경쟁력 확보 목표와 극동에서의 과제 (러 극동북극개발부 또는 극동투자수출지원청) 2. 극동러 제조업 활성화를 위한 산업단지 조성 현황과 과제(이현주 박사, 국토연) 3. 극동러에서의 제조업 공급사슬 구축의 제약요인과 대응방안 드미트리 쿠디노프 마스다슬러스 대표/(후보)극동조선수리센터(즈베즈다) 4. 극동러 제조업 분야 남북러 산업협력과 공급사슬 구축방향(김학기 박사, 산업연)	
	토론 각 10분	(한) 이백진 소장(국토연), 전명수 교수(블라디보스토크경제서비스대), 이병만 처장(LH 한국토지주택공사) (러) A. 예로힌 언스트&영 극동대표, N. 프리시키나 법무법인 Pepeliaev 극동대표, V. 필로넨코 하바롭스크주정부 대외경제부차관(잠정)	
15:30~15:50		Coffee Break	
Session III		초국경 시대 Supply Chain 구축 촉진 방안	
15:50~17:50 좌장: 강현수 국토연 원장	주제 발표 각 15분	1. 러시아 국제 트랜짓 수송 활성화 목표와 한러 협력과제 (미하일 홀로샤 FEMRI 부대표) 2. 극동러 제조업 분야 공급사슬 구축을 위한 투자 다각화 사례 (천정우 컨설턴트, EY모스크바) 3. 러시아의 북극해 자원개발과 공급사슬 구축 계획 (데니스 부로프, 네벨스코이국립해양대 총장) 4. 한러 자원 공급사슬 연계 북극항로 활성화 방안 (조지성 박사, KMI)	
	토론 각 7분	(한) 안병민 박사(국가안보전략연구원 객원연구위원), 임영태 박사(국토연), 김주호 그룹장(포스코에너지) (러) 이고르 후루시체프 러연방교통부 블라디보스토크 대표, 드미트리 코로스테레프 캄차트카주정부 경제개발부 장관, 이반 토키희 라선콘트란스 사장	
17:50~18:00		마무리 (이성우 본부장)	

* 상기 일정은 현지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 가능



주 블라디보스톡 대한민국 총영사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 Fisheries Research & Institute

국제물류위클리
KMI International Logistics Weekly

제499호 | 2019년 5월 22일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제9차 한-러 극동포럼 참가신청서

참가신청 기업 정보

기업명/기관명		이메일		
성명		전화		
부서		휴대폰		
직책		팩스		
국내업체 분야				
주요 관심분야 *복수선택 가능	☐ 농·수산			
	☐ 제조			
	☐ 물류			
	☐ 기타()			
참가자 정보	성명	직책	연락처	E-mail

당사는 제9차 한-러 극동포럼 참가를 신청합니다.

2019. . . 신청인 : 서명 :

제8차 한-러 극동포럼 추진을 위해 아래와 같이 귀하의 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목적 : 발굴된 프로젝트 정보 공유 및 사업 참가 희망업체와의 연락
-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회사명, 성명, 부서, 직급, 이메일, 전화, 휴대폰, 팩스 번호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본 사업의 계약 기간은 3년으로 계약기간 동안 귀하의 개인 정보를 보유합니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위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동의하십니까?

- ☐ 동의함
- ☐ 동의 안함

위 사항을 빠짐없이 작성하고, 서명 후 스캔을 하시어 이메일로 송부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사항에 대해 상세 설명이 필요할 경우 별지 사용이나 참고 자료 송부가 가능합니다.